

“사순 시기는 왜 40일 일까요?”

‘사순 시기’는 원래 성삼일을 합당히 준비하기 위해 지냈던 사순 제1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로마 전례력에서는 사순 시기가 ‘재의 수요일’부터 성삼일 직전인 ‘주님만찬 미사’ 전까지 44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7세기에 이르러, 사순 시기의 시작일이 사순 제1주일인 아닌 재의 수요일로 앞당겨졌는데, 이는 단식과 재의 예식을 통해 사순 시기를 더욱 경건하게 시작하려는 신자들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부활성야 미사를 앞당겨서 성토요일 오후 두 시에 거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활성야 미사가 성토요일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부활대축일 미사는 따로 낮에 거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삼일을 목, 금, 토요일의 삼일로 오해하였습니다. 동시에 성삼일이 사순 시기에 속하고, 부활대축일은 성삼일과 분리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순 시기는 성삼일이 아닌 부활대축일만을 준비하는 46일의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개혁을 통해 성삼일과 사순 시기의 신원을 올바르게 복원하였습니다. 부활성야 미사의 거행 시작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밤으로 옮겼고, 미사를 자정 전에 거행한다 하더라도 부활 주일에 속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삼일은 주님께서 수난하시고 부활하신 금, 토, 주일의 삼일로 복원되었고, 성목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님만찬 미사는 성삼일의 전야 미사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순 시기가 성삼일 직전에 끝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순 시기의 신원을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당시, 사순 시기를 원래대로 사순 제1주일로 시작하여 40일의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재의 수요일에 단식과 재의 예식으로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44일의 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재의 수요일로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관습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¹⁾

사순 시기는 글자 그대로 40일이 아니라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회개와 정화의 시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일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사순 시기 동안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띠앗 원고의 지면이 부족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다 보니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로마 전례력에 의한 사순 시기 기간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띠앗은 청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갑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띠앗 올림.

1)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28항 참조.